

임산부의 체형에 관한 인식 유형

차수정^o, 주민경^{*}
서원대학교 패션의류학과^o
주)줌마케팅^{*}
e-mail: carollain@seowon.ac.kr^o

Types of perception on the body shape of the pregnant women

Su-Joung Cha^o, Min-Kyung Joo^{*}
Dept. of Fashion & Clothing, Seowon University^o
Zoom Marketing Corporation^{*}

● 요약 ●

본 연구는 현재 임신 중인 임산부 중 6개월 이상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스스로가 본인의 체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주관적 평가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임산부의 체형에 적합한 의복디자인 및 패턴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Q방법론을 사용하였으며, Q분석은 퀴널 프로그램(QuANL pc program)을 사용하였다. 임산부의 체형에 대한 인식 유형은 가는 팔다리 중앙 반구형 복부 체형, 처진 복부 돌출 체형, 굵은 윗팔 중앙 돌출 복부 체형의 3가지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가는 팔다리 중앙반구형 복부 체형은 임신 전 BMI지수가 가장 낮아 정상에 속하였으며 팔다리는 가늘고 다른 부위는 거의 살이 찌지 않았으며 배만 나왔다고 인식하였다. 처진 복부 돌출 체형은 임신 전 BMI 지수가 가장 높아 과체중에 속한 유형으로 가슴둘레, 엉덩이둘레뿐만 아니라 몸에 전체적으로 살이 찘으며, 배가 아래로 처진 체형으로 인식되었다. 굵은 윗팔 중앙 돌출 복부 체형은 제1유형과 같이 복부의 중앙부분이 돌출되어 있다고 인식하였으나 윗팔둘레가 굵어졌다고 인식하여 제1유형과는 차이를 나타냈다. 임신 전 BMI 지수는 중간인 그룹으로 정상에 속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임산부의 실제 체형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의 인식 체형과의 차이를 비교분석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키워드: 체형(body shape), 임산부(pregnant women), 인식(perception), 유형(type), Q방법론(Q-method)

I. Introduction

여성은 임신에 따라 생리적, 신체적, 심리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임산부는 심리적으로 행복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게 되어 복잡한 정서를 나타낸다. 임산부의 신체적 변화로는 복부, 가슴 및 체중의 변화가 현저하게 일어난다. 목둘레, 엉덩이둘레, 넓적다리두께, 윗팔둘레의 변화가 커지게 되는데, 이는 태아의 성장으로 인한 모체의 변화, 피하지방의 증가와 비대화에 의한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1]. 임산부의 신체적 변화는 그 기간 및 개월 수에 따라 변화량이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임신 중인 임산부 중 6개월 이상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스스로가 본인의 체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주관적 평가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임산부의 체형에 적합한 의복디자인 및 패턴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Methods

1. Q Population and Q Sample

Q모집단은 임산부의 체형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모든 의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Q표본은 임산부의 체형과 관련된 모든 진술문이다. Q표본은 상반신 체형, 하반신 체형 관련 진술문 31개로 구성하였다.

2. P Sample

본 조사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임산부 중에서도 체형의 변화가 거의 없는 초기 임산부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는 2019년 2월 7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진행되었다. P표본은 임의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하였으며, 최종 20명의 P샘플을 선정하였다.

3. Q Sorting

Q소팅은 표본이 유사정상분포(quasi-normal distribution)가 되도록 강제분포방식을 활용하였다.

4. Statistic and Analysis Method

Q분석은 퀴넬 프로그램(QUANL pc program)으로 이루어졌다.

수평단면은 허리와 배에 비해 거의 편평하며, 체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임신 5개월 이후부터 허리둘레가 커지고 복부둘레도 커지며 9개월 이후에는 엉덩이둘레보다 복부둘레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3]. 그러나 임신부의 체형을 분류한 선행연구는 미미하여 본 연구의 인식체형과의 비교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임신부의 실제 체형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의 인식 체형과의 차이를 비교분석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III. Result

1. Formation of Q type

2.1 Type 1:

제1유형은 총 10명으로 구성되는데, 제1유형의 임신부는 모두 팔다리에는 살이 거의 찌지 않은 유형이다. 제1유형의 경우 팔다리는 살이 찌지 않고 배의 가운데가 가장 솟은 배만 나온 체형이라고 인식되었다. 그리고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만 증가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제1유형을 가는 팔다리 중앙 반구형 복부 체형이라고 명명하였다.

2.2 Type 2:

제2유형은 8명으로 구성되는데, 제2유형의 임신부들은 제1유형과는 다소 다른 인식을 보이고 있다. 제2유형은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가 증가하였으며 배가 처져서 아랫부분이 가장 높게 솟아 있는 체형으로 인식되었다. 제2유형은 처진 복부 돌출 체형이라고 명명하였다.

2.3 Type 3:

제3유형은 총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유형과는 유사하게 복부의 가운데 부분이 돌출되어 있지만 제1유형과는 달리 엉덩이두께가 증가되고 윗팔둘레가 커진 유형으로 인식되었다. 제3유형은 배의 가운데부분이 가장 높이 솟아 있고 엉덩이두께가 증가되었으며, 엉덩이둘레와 가슴둘레가 커졌고 윗팔둘레가 커진 체형이다. 제3유형을 굵은 윗팔 중앙 돌출 복부 체형으로 명명하였다.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임신부 스스로가 자신의 체형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유형화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유형별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임신부의 체형에 대한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복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임산부의 체형에 대한 인식 유형은 가는 팔다리 중앙 반구형 복부 체형, 처진 복부 돌출 체형, 굵은 윗팔 중앙 돌출 복부 체형의 3가지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실제 임신부의 체형을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신부는 횡단적 연구에서 높이항목에는 변화가 거의 없으나 너비, 두께, 둘레항목은 가슴부위, 밑가슴부위, 윗가슴부위 모두 증가하며, 유방의 하수와 비만현상으로 옆목점에서 유두점 길이와 앞폭이 증가하고 가슴의

ACKNOWLEDGEMENT

본 논문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2018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No.S2653297)의 연구수행으로 인한 결과물임을 밝힙니다.

REFERENCES

- [1] H. M. Kang. "The developing design of the maternity dress by the alteration of the form and the preference(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pp.17-24, 2008.
- [2] M. H. Na, M. S. Kim and S. H. Park. " A study on bodice basic pattern design for a pregnant woma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4(1), pp. 75-83, 1995.
- [3] K. H. Lee. "A Study on the functions of maternity girdles(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pp.4-8, 1991.